

국내·외 아스퍼거 장애 관련 연구 동향 분석: 1997 ~ 2007년 문헌을 중심으로*

윤치연

춘해보건대학 유아특수언어재활과

최성욱**

부산보림초등학교

《요약》

일반적으로 교육장면에서 아스퍼거 장애의 경우 사회적 의사소통의 부재 또는 반복 행동의 비정상적인 기능으로 인해 평균범위의 능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폐 범주성 장애(ASD)로 분류되어 낮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외 아스퍼거 장애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아스퍼거 장애를 포함한 자폐 범주성 장애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101편의 국·내외 아스퍼거 장애 관련 학술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을 기초로 하여 연구 대상의 특성, 중재 프로그램, 연구 주제, 연구 방법의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 아스퍼거 장애, 자폐 범주성 장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아스퍼거 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 가지 이유는 기존의 자폐 장애에서 분리되어 DSM-IV(APA, 1994)와 ICD-10(1993)에 공식적인 장애로 등장하면서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것과 같이 아스퍼거 장애의 출현율이 자폐 아동의 출현율에 비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부터이

* 이 논문은 2008년도 춘해보건대학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byeyou2000@hanmail.net)

다(Ehlers & Gillberg, 1993; Stewart, 2002).

이처럼 아스퍼거 장애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Wing(1981)은 학문적인 관심은 강함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문제와 학습장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내는 이 아동들에 대한 교육적 배치를 위하여 자폐 장애 아동과 명확히 구분하여 라벨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유럽과 미국의 소아정신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Autism’s shadow” (Hayden, 1998)와 “Little professors who can’t understand social cues” (O’Neil, 1999)로 출판되는 등 인기 있는 연구 주제로 군림해온 것이 사실이나 아직 학교장면 및 특수교육 연구 분야에서는 주의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하였다(Carter et al., 2004; Myles & Simpson, 2001; Stephen, 2001).

이로 인해 아스퍼거 장애 아동들은 초기의 문제가 청소년, 성인기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Attwood(1998)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아스퍼거 장애 아동들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올바른 중재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재방안 모색을 위한 아스퍼거 장애 아동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특성, 행동·감정적 특성, 지적·인지적 특성, 학업적 특성, 감각적 특성, 운동적 특성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Myles & Simpson, 2001). 첫째, 아스퍼거 장애 아동들은 또래 아동들과 비교해 사회적 인식에 있어 결여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아스퍼거 장애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존중감과 자기 인식에 있어 문제를 안고 있으며, 보통 사춘기와 성인기 초기까지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또래 아동들과 효율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편함과 불안이 증가할 것이다(Myles & Adreon, 2001). 둘째, 아스퍼거 장애 아동들은 사회적 규칙이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 과업에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불안, 우울, 주의 문제, 비행 등과 관련하여 행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셋째, 아스퍼거 장애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지적 능력과 언어 발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PA, 2000). 그러나 웨슬러 지능검사 결과 언어성 지능이 운동성 지능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Ehlers et al., 1997)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하나 아스퍼거 장애 관련 연구가 제한적이므로, 고기능 자폐 연구에 의존하여 아스퍼거 장애 아동의 지적 능력을 추정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대다수의 아스퍼거 장애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학업에 있어 큰 문제를 나타내지 않으나 그들의 수학 성적은 낮은 편이다. 특히, 방정식을 풀거나 수학적 계산 문제에 답하는 것과 관련하여 낮은 성적을 나타낸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거나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기도 한다. 다섯째, 아스퍼거 장애 아동들은 때때로 시각적 자극이나 특정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이 민감성은 초조나 행동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아스퍼거 장애 아동들은 의사소통이나 상대방의 관점을 인식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부재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우주영, 2004).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 이외에 아스퍼거 장애 아동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정서 조절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Gresham, Sugai, & Horner, 2001).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스퍼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특수교육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스퍼거 장애 관련하여 국외의 경우는 사례연구뿐만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의 경우는 소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며, 실험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외 아스퍼거 장애 관련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아스퍼거 장애 및 자폐 범주성 장애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일반적으로 아스퍼거 장애의 경우 사회적 의사소통의 부재 또는 반복 행동의 비정상적인 기능으로 인해 평균범위의 능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폐 범주성 장애(ASD)로 분류되어 낮게 평가되고 있다(McConachie, Couteur, & Honey,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외 아스퍼거 장애 관련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아스퍼거 장애를 포함한 자폐 범주성 장애(ASD) 교육 및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국외 아스퍼거 장애 관련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나타난 연구 대상의 특성은 어떠한가?
- 2) 국외 아스퍼거 장애 관련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나타난 중재 프로그램의 동향은 어떠한가?
- 3) 국외 아스퍼거 장애 관련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나타난 연구 주제의 동향은 어떠한가?
- 4) 국내·외 아스퍼거 장애 관련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나타난 연구 방법의 동향은 어떠한가?
- 5) 국내 아스퍼거 장애 관련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나타난 서술적 기술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논문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을 위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1년간 이루어진 국·내외 아스퍼거 장애 관련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아스퍼거 장애 아동들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으므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 학위논문, 문헌고찰 및 비교연구를 제외한 질적 연구 및 실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분석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국내·외 특수교육관련 학술논문으로 제한하였다. 특수교육관련 논문으로 파악하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는 본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가 함께 검토한 후에 제외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학술지, 복리뷰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국내 학술지의 범위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한정하였다. 2009년 1월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등재(후보)지로 등록된 학술지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총 17개의 학술지가 선정되었다. 특수교육학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언어치료연구, 특수교육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놀이치료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유아특수교육연구, 지적장애연구, 시각장애연구, 특수교육, 학습장애아연구와 같다. 선정된 학술지에서 분석 대상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4U), 한국학술정보(KISS), 국회도서관, 누리 미디어를 활용하였으며, 웹으로 제공받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호대차원문 복사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넷째, 국외 학술지의 경우는 국내의 경우와 달리 아스퍼거 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다. 따라서 특수교육관련 학술지를 위주로 하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아스퍼거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분석 대상 논문에 포함시켰다. 이 기준에 의해 총 40편의 학술지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학술지에서 분석 대상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EJIS(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와 Springer(www.springer.com)를 활용하였다.

다섯째, 아스퍼거 장애 관련 논문을 선정하기 위해 검색어를 국내의 경우는 ‘아스퍼거’, ‘아스퍼거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국외의 경우는 ‘Asperger’, ‘Asperger disorder’, ‘Asperger syndrome’이란 주제어로 최초 863편의 논문을 1차 검색하였다. 1차 검색한 논문을 토대로 분석 대상 논문 선정을 위해 앞서 제시한 네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2차 검토 작업을 수행한 결과 195편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5편, 국외 96편 총 101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논문의 연도별 발표 수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국내						3		2				5
국외		1	2	5	6	6	9	25	24	14	4	96

분석 대상 논문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본 결과 국내는 놀이치료연구 2편, 정서·행동장애연구 2편, 한국심리학회지 1편으로 나타났다. 국외는 40편의 학술지 중 1편이상 출판된 학술지는 10편이었으며, 나머지 30편의 학술지는 1편씩만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학술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상위 10개의 국외 학술지명과 연도별 발표 수

순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							2	9	11	1		23
2		1	1	3	2	3	1	4	1			16
3							2	1		2	1	6
4							1	2	1			4
5						2			1			3
6					1					1		2
7					1				1			2
8								1		1		2
9									1	1		2
10									1	1		2

* 참고: 순위별 국외 학술지명 1) J.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 2) J. Child Psychol. Psychiatry 3)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4)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5) Educational Psychology in Practice 6) Cognitive Neuropsychiatry 7) Visual Cognition 8)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9)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10) J. Child Neurology

2. 분석 내용

국내·외 아스퍼거 장애 관련 문헌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방법 관련 도서(남기성, 2006; 성태제, 시가자, 2006; 최현철, 2003) 및 동향 분석 관련 선행연구(김소희, 정혜승, 2007; 김은경, 김은경, 2006; 전병운, 고진복, 2007; 최성욱, 김민정, 2007)를 참고하여 분석기준을 작성하였다. 분석기준의 내용타당도는 특수교육관련 교수 2인에게 보여 검토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가 모여 분석유목에 관해 3차에 걸쳐 검토를 실시한 연후에 그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여 <표 3> 논문 분석유목과 같이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영역은 모든 분석 대상 논문에 대해 연구 대상의 특성, 증재 프로그램,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서술적 분석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표 3> 논문 분석유목

분석영역	분석내용	
연구 대상의 특성	대상연령	국외 분석 대상 논문에서 아스퍼거 장애만을 대상으로 0 ~ 6세, 7 ~ 13세, 14 ~ 19세, 20세 이상(성인 포함)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
	대상자수	국외 분석 대상 논문에서 아스퍼거 장애의 수만 파악(전체 참여자수는 괄호 속에 아라비아 숫자로 제시)하며, 5명 이하, 6 ~ 10명, 11 ~ 30명, 31명 이상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
증재 프로그램 (독립변인)	국외 분석 대상 논문을 중심으로 증재 프로그램의 빈도를 정서, 언어(비언어 포함), 인지(지능, 기억 포함), 행동(감각, 지각, 운동 포함), 공학(ICT, 보조공학 포함), 사회성, 평가, 기타의 유목으로 나눠 분석	
연구 주제 (종속변인)	국외 분석 대상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주제의 빈도를 정서, 언어(비언어 포함), 인지(지능, 기억 포함), 행동(감각, 운동 포함), 성, 사회성, 수면, 기타로 나눠 분석	
연구 방법	국내·외 분석 대상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방법의 빈도를 분석	
서술적 분석	국내 분석 대상 논문을 중심으로 저자, 연도, 대상(연령, 수), 증재 프로그램, 연구 주제, 연구 방법으로 나눠 분석	

1) 연구 대상의 특성

연구 대상의 특성은 대상연령, 대상자수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령은 연구에 참여

한 아스퍼거 장애만을 대상으로 하여 0~6세, 7~13세, 14~19세, 20세 이상(성인 포함)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수는 5명 이하, 6~10명, 11~30명, 31명 이상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아스퍼거 장애의 수만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체 참여자수는 괄호 속에 아라비아 숫자로 제시하였다.

2) 중재 프로그램

분석 대상 논문을 중심으로 독립변인(중재 프로그램)의 빈도를 정서, 언어(비언어 포함), 인지(지능, 기억 포함), 행동(감각, 지각, 운동 포함), 공학(ICT, 보조공학 포함), 사회성, 평가, 기타의 유목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3) 연구 주제

분석 대상 논문을 중심으로 종속변인(연구 주제)의 빈도를 정서, 언어(비언어 포함), 인지(지능, 기억 포함), 행동(감각, 운동 포함), 성, 사회성, 수면, 기타로 나눠 분석하였다.

4)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 대상 논문 중 학위논문, 문헌고찰 및 비교연구를 제외한 질적연구 및 실험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5) 서술적 분석

국내 분석 대상 논문을 중심으로 저자, 연도, 대상(연령, 수), 중재 프로그램, 연구 주제, 연구 방법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3. 분석자간 신뢰도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연구자가 30%(N=31)에 해당하는 논문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후 분석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분석자간 신뢰도의 수식은 일치된 수를 일치된 수와 불일치된 수의 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수식을 통해 나온 분석자간 평균 신뢰도는 95%(범위 90%~100%)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를 기초통계와 빈도분석으로 제시하고자 SPSS 12.0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아스퍼거 장애 관련 국·내외 학술지의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외 분석 대상 논문의 경우는 연구 대상, 중재 프로그램, 연구 주제, 연구 방법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빈도 분석하였다. 그러나 국내 분석 대상 논문의 경우는 대상 논문의 수가 많지 않아 저자, 연도, 연구 대상(연령, 수), 중재 프로그램, 연구 주제, 연구 방법의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서술적으로 기술하였다.

1. 연구 대상의 특성

연구 대상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76건 중 남자는 53건, 여자는 23건이었다. 남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은 0~6세 1건(1.9%), 7~13세 21건(39.6%), 14~19세 9건(17.0%),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는 22건(41.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여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은 0~6세 0건(0.0%), 7~13세 10건(43.5%), 14~19세 1건(4.3%),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는 12건(52.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와 여자 모두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문헌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스퍼거 장애의 경우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 문제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비장애 아동들이 나타내는 영·유아기 특성과의 구분이 어려워 쉽게 노출되지 않다가 학령기 이후 또래 아동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요구받거나 우정의 결핍, 낮은 자조기술들, 부적절한 의사소통기술 등의 행동특성들로 인해 아스퍼거 장애로 명명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McConachie, Couteur, & Honey, 2005).

대상자수별로 살펴보면, 전체 81건 중 남자는 57건, 여자는 2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은 5명 이하 13건(22.8%), 6~10명 7건(12.3%), 11~30명 29건(50.9%), 31명 이상 8건(14.0%)이었다. 또한 여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은 5명 이하 14건(58.3%), 6~10명 4건(16.7%), 11~30명 4건(16.7%), 31명 이상 2건(8.3%)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상연령과 대상자수의 경우 모두 1997년에서 2007년으로 옮겨 갈수록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illberg 등(1989)이 다른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에 비해 5배 가량 높은 출현율을 나타낸다는 역학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대상연령의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건으로 거의 전무한 데 비해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남자 22건, 여자 12건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tewart(2002)가 미국의 경우를 들어 남아가 여아에 비해 3~9배 높다고 제시한 아스퍼거 장애 출현율의 성비 분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석 대상 논문에서도 여자에 비해 남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자의 경우는 대상자수 11명 이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문헌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나타낸 반면 여자의 경우는 5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문헌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높은 출현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진한 아스퍼거 장애에 대한 연구가 연령이나 성비를 떠나 다각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국외 학술지의 연구 대상별 특성을 분석한 내용은 <표 4>과 같다.

<표 4> 국외 학술지 연구 대상의 특성

구분	성별				
	남		여		
	N	%	N	%	
대상 연령	0 ~ 6세	1	1.9	0	0.0
	7 ~ 13세	21	39.6	10	43.5
	14 ~ 19세	9	17.0	1	4.3
	20세 이상	22	41.5	12	52.2
	계	53	100	23	100
대상 자수	5명 이하	13	22.8	14	58.3
	6 ~ 10명	7	12.3	4	16.7
	11 ~ 30명	29	50.9	4	16.7
	31명 이상	8	14.0	2	8.3
	계	57	100	24	100

2. 중재 프로그램

중재 프로그램을 분석해 본 결과 마음이론 8건(15.1%), 면접과 설문지 각각 4건(7.5%), 부분과 전체 과제 2건(3.8%), 교정시력 검사 2건(3.8%), 신경심리학적 검사 2건(3.8%), 질문지 2건(3.8%), 활동량 검사 2건(3.8%), 인지 행동 중재 2건(3.8%), 사회적 귀인 과제 1건(1.9%), Ekman 시리즈 1건(1.9%), 네 가지 다른 컴퓨터 과제 1건(1.9%), 몸짓 검사 1건(1.9%), 의사소통 색인들 1건(1.9%), 사회

적응 향상 중재 1건(1.9%), 구어 지각 검사 1건(1.9%), 지능검사 1건(1.9%), 공감-체계화 이론 1건(1.9%), 감정 지수 1건(1.9%), 얼굴 정보처리 전략 1건(1.9%), 지원의 제시와 박탈 1건(1.9%), 연합 행동적 상담 1건(1.9%), 한계범위의 새로운 검사 1건(1.9%), 네 가지 음조 듣기 1건(1.9%), Polhemus 전자기의 운동 능력별 학습평가 체계 1건(1.9%), ICT 집단 수행 1건(1.9%), 비현실적 얼굴 과제 1건(1.9%), 컴퓨터 중재 의사소통 1건(1.9%), 자폐 스펙트럼 지수 1건(1.9%), 사회적 기술 치료 1건(1.9%), 상황 이야기 1건(1.9%), 얼굴-목소리 배터리 1건(1.9%), 보조 공학 1건(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마음이론이 8건(15.1%)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설문 4건(7.5%), 면접 4건(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스퍼거 장애 아동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진단, 평가 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외 학술지의 중재 프로그램(독립변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국외 학술지의 중재 프로그램명과 빈도

구분	순번	프로그램명	N(%)
독립변인	1	마음이론(Theory of mind)	8(15.1)
	2	언어 반응 과제(Verbal response task)	1(1.9)
	3	면접(Interview)	4(7.5)
	4	사회적 귀인 과제(Social attribution task)	1(1.9)
	5	부분과 전체 과제(local and Global task)	2(3.8)
	6	Ekman 시리즈(Ekman series)	1(1.9)
	7	네 가지 다른 컴퓨터 과제 (Four different illusion computer task)	1(1.9)
	8	교정시력 검사(Revised eyes test)	2(3.8)
	9	설문지(Mailed surveys, Surveys)	4(7.5)
	10	몸짓 검사(Gesture test)	1(1.9)
	11	의사소통 색인들(Conversational indices)	1(1.9)
	12	신경심리학적 검사(Neuropsychological test)	2(3.8)
	13	질문지(Questionnaire)	2(3.8)
	14	사회 적응 향상 중재 (Social adjustment enhancement intervention)	1(1.9)
	15	구어 지각 검사(Speech perception test)	1(1.9)
	16	지능검사(WISC-III, WAIS-R)	1(1.9)
	17	공감-체계화 이론(Empathizing-systemizing theory)	1(1.9)

	18	감정 지수(Empathy quotient)	1(1.9)
	19	얼굴 정보처리 전략(face processing strategies)	1(1.9)
	20	지원의 제시와 박탈(Presence or absense of support)	1(1.9)
	21	연합 행동적 상담(Conjoint behavioural consultation)	1(1.9)
	22	한계범위의 새로운 검사(Novel test of boundary extention)	1(1.9)
	23	네 가지 음조 듣기(Listen to four tones)	1(1.9)
	24	Polhemus 전자기의 운동 능력별 학습평가 체계 (Polhemus electromagnetic motion tracking system)	1(1.9)
	25	ICT 집단 수행(ICT group work)	1(1.9)
독립변인	26	활동량 검사(Actigraphy)	2(3.8)
	27	인지 행동 중재(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	2(3.8)
	28	비현실적 얼굴 과제(Chimeric face task)	1(1.9)
	29	컴퓨터 중재 의사소통(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9)
	30	자폐 스펙트럼 지수(Autism spectrum quotient)	1(1.9)
	31	사회적 기술 치료(Social skills treatment)	1(1.9)
	32	상황 이야기(Social stories)	1(1.9)
	33	얼굴-목소리 배터리(Face-voice battery)	1(1.9)
	34	보조 공학(Assistive technology)	1(1.9)
	계		53(100)

<표 5>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독립변인(중재 프로그램)의 빈도를 정서, 언어(비언어 포함), 인지(지능, 기억 포함), 행동(감각, 지각, 운동 포함), 공학(ICT, 보조공학 포함), 사회성, 평가, 기타의 유목으로 나눠 분석해 본 결과 인지와 행동이 7건(20.6%), 정서 6건(17.6%), 언어 6건(17.6%), 사회성 4건(11.8%), 공학 3건(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국외 학술지의 중재 프로그램 하위 항목 별로 분석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국외 학술지의 중재 프로그램 하위 항목별 분석

구분	하위 항목	주제	N(%)
독립변인	정서	1, 6, 12, 17, 18, 27	6(17.6)
	언어	2, 11, 15, 23, 28, 33	6(17.6)
	인지·행동	8, 10, 16, 19, 26, 21, 24	7(20.6)
	공학	7, 25, 34	3(8.8)
	사회성	4, 14, 31, 32	4(11.8)
	기타	3, 5, 9, 13, 20, 22, 29, 30	8(23.5)
계			34(100)

* 참고: 주제 항목안의 아라비아 숫자는 중재 프로그램명의 순번을 지칭함

중재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마음이론과 면접, 설문이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중재 프로그램(독립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논문에서 중재 프로그램명을 달리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마음이론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연구는 아스퍼거 장애 아동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후 데이터를 수집한 문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증기 이후 신경학적 프로필을 살펴보는 연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Reitzel과 Szatmari(2003)이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뇌를 토대로 하여 신경심리학적 프로필의 차이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아스퍼거 장애 진단이 DSM-IV-TR 및 ICD-10과 같은 진단준거를 근거로 하여 임상적 관찰에 그치는 등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진단 및 평가가 용이하지 못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며(Rhinehart, 2002),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스퍼거 장애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기존의 자폐성 장애를 대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연구 주제

연구 주제별로 분석해본 결과 마음 읽기 3건(5.5%), 불안 3건(5.5%), 얼굴 표정의 재인지 2건(3.6%), 우정의 지각 2건(3.6%), 수면 문제 2건(3.6%), 사회적 행동 2건(3.6%), 감정 재인 2건(3.6%), 신념 용어 발달 1건(1.8%), 시각적 착시 1

건(1.8%), 학교 학생들의 이해를 통한 자기 보고 1건(1.8%), 부분적 상세의 비전형적 간섭과 전체적 정보처리 1건(1.8%), 추정능력 1건(1.8%), 시각-개념 통합 1건(1.8%), 문맥 내에서의 대상 통합 1건(1.8%), 괴롭힘의 모(母) 지각 1건(1.8%), 둔화 1건(1.8%), 의사소통 행동 1건(1.8%), 정신 상태와 육체적 상태 1건(1.8%), 허가와 신경심리학적 상세한 기술 1건(1.8%), 뇌 혈류 흐름의 변화 1건(1.8%), 특수한 행동 문제 1건(1.8%), 고용 1건(1.8%), 성적 학대 1건(1.8%), 우울 문제 해결 1건(1.8%), 실행 기능 1건(1.8%), 구어 반응 역치 1건(1.8%), 지적 수준 1건(1.8%), 공감과 체계화 1건(1.8%), 감정 1건(1.8%), 공간적 주파수와 정보처리 1건(1.8%), 원문 어구에 충실하지 않은 언어 문제 1건(1.8%), 원천 기억 1건(1.8%), 자기 관리 1건(1.8%), 한계 범위 1건(1.8%), 음높이 지각 1건(1.8%), 상호작용과 사회적 허용 1건(1.8%), 공존질환 1건(1.8%), 성 정체성 1건(1.8%), 비현실적 얼굴에 따른 편측성 성향 1건(1.8%), 비문자 언어에 대한 반응과 부적절한 요구들 1건(1.8%), 선별 1건(1.8%), 반복 행동 수준 1건(1.8%), 낮은 중앙 응집력 1건(1.8%), 신경심리학적 기능 1건(1.8%), 주기 리듬 기능과 수면 1건(1.8%), 특별한 흥미 영역 1건(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마음 읽기와 불안이 각각 3건(5.5%)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얼굴 표정의 재인지 2건(3.6%), 우정의 지각 2건(3.6%), 수면 문제 2건(3.6%), 사회적 행동 2건(3.6%), 감정 재인 2건(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주제(중속변인)별 빈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7>와 같다.

<표 7> 국외 학술지의 연구 주제별 빈도

구분	순번	연구 주제명	N(%)
중속변인	1	신념 용어 발달(Belief term development)	1(1.8)
	2	시각적 착시(Visual illusions)	1(1.8)
	3	학교 학생들의 이해를 통한 자기 보고 (Self reports of comprehensive school students)	1(1.8)
	4	부분적 상세의 비전형적 간섭과 전체적 정보처리 (Atypical interference of local detail and global processing)	1(1.8)
	5	얼굴 표정의 재인지(Recognition of facial emotions)	2(3.6)
	6	추정능력(Mentalising)	1(1.8)
	7	시각-개념 통합(Visuo-conceptual integrating)	1(1.8)
	8	문맥 내에서의 대상 통합(Integrate objects in context)	1(1.8)

중속변인	9	괴롭힘의 모(母) 지각 (Mothers perceptions of victimization)	1(1.8)
	10	둔화(Clumsiness)	1(1.8)
	11	의사소통 행동(Conversational behaviour)	1(1.8)
	12	정신 상태와 육체적 상태(Mental state and physical state)	1(1.8)
	13	우정의 지각(Perception of friendship)	2(3.6)
	14	허가와 신경심리학적 상세한 기술 (Admission and neuropsychological details)	1(1.8)
	15	뇌 혈류 흐름의 변화(Changes in cerebral blood flow)	1(1.8)
	16	특수한 행동 문제(Special behavioural problem)	1(1.8)
	17	고용(Employment)	1(1.8)
	18	성적 학대(Sexually abusive)	1(1.8)
	19	마음 읽기(Mind-reading)	3(5.5)
	20	우울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depression)	1(1.8)
	21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	1(1.8)
	22	구어 반응 역치(Speech reception thresholds)	1(1.8)
	23	지적 수준(Intellectual profile)	1(1.8)
	24	공감과 체계화(Empathizing and systemizing)	1(1.8)
	25	감정(Empathy)	1(1.8)
	26	공간적 주파수와 정보처리 (Spatial frequency and processing)	1(1.8)
	27	원문 어구에 충실하지 않은 언어 문제 (Cause non-literal language problems)	1(1.8)
	28	원천 기억(Source memory)	1(1.8)
	29	자기 관리(Self-management)	1(1.8)
	30	한계 범위(Boundary extention)	1(1.8)
	31	음높이 지각(Pitch perception)	1(1.8)
	32	상호작용과 사회적 허용 (Interaction and social acceptance)	1(1.8)
	33	공존질환(Comorbidity)	1(1.8)
	34	불안(Anxiety)	3(5.5)
	35	수면 문제(Sleep problems)	2(3.6)

	36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1(1.8)
	37	비현실적 얼굴에 따른 편측성 성향 (Laterality biases to chimeric faces)	1(1.8)
	38	비문자 언어에 대한 반응과 부적절한 요구들(Respond to non-literal language and inappropriate requests)	1(1.8)
	39	선별(Screening)	1(1.8)
	40	반복 행동 수준(Repetitive behaviour profiles)	1(1.8)
중속변인	41	낮은 중앙 응집력(Weak central coherence)	1(1.8)
	42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r)	2(3.6)
	43	감정 재인(Emotion recognition)	2(3.6)
	44	신경심리학적 기능(Neuropsychological function)	1(1.8)
	45	주기 리듬 기능과 수면 (Circadian rhythm functioning and sleep)	1(1.8)
	46	특별한 흥미 영역(Special interest areas)	1(1.8)
	계		55(100)

<표 7>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속변인(연구 주제)의 빈도를 중속변인(연구 주제)의 빈도를 정서, 언어(비언어 포함), 인지(지능, 기억 포함), 행동(감각, 운동 포함), 성, 사회성, 수면, 기타로 나눠 분석해 본 결과 인지와 행동이 14건(30.4%), 정서 11건(23.9%), 기타 9건(19.6%), 언어 5건(10.9%), 사회성 3건(6.5%), 수면 2건(4.3%), 성 2건(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국외 학술지의 연구 주제 하위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표 8>와 같다.

<표 8> 국외 학술지의 연구 주제 하위 항목별 분석

구분	하위 항목	주제	N(%)
	정서	1, 5, 13, 14, 19, 20, 23, 24, 33, 41, 43	11(23.9)
	언어	11, 21, 26, 30, 37	5(10.9)
중속변인	인지·행동	2, 4, 6, 7, 10, 12, 16, 22, 25, 27, 36, 40, 39, 44	14(30.4)
	성	18, 35	2(4.3)
	사회성	31, 32, 42	3(6.5)

종속변인	수면	34, 45	2(4.3)
	기타	3, 8, 9, 15, 17, 28, 29, 38, 46	9(19.6)
		계	46(100)

* 참고: 주제 항목안의 아라비아 숫자는 연구 주제명의 순번을 지칭함

연구 주제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분석 대상 학술지 중 초기에는 얼굴 표정의 인식이나 시각적인 착각, 신념에 관한 연구가 중기에는 초기의 연구에 더하여 성적 학대 및 동정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기에는 불안이나 수면 장애,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가 등장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런 결과는 초기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 결과에서는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거나 뛰어난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너무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자폐 범주성 장애에 비해 관심을 받아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Frith, 2004; Gillberg & Billstedt, 2000). 그러나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아스퍼거 장애 아동들도 운동 협응 문제뿐만 아니라 수학과 문서를 읽는 데 있어 문제를 나타낸다는 보고와 더불어 아동의 발달적 지체 문제와 관련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rith, 2004; Green et al., 2002; Reitzel & Szatmari, 2003).

4.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학술지를 대상으로 사례연구와 실험연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 문헌의 빈도를 살펴보면, 사례연구 5건(38.5%), 실험연구 0건(0.0%)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외 문헌의 경우는 사례연구 8건(61.5%), 실험연구 41건(100%)으로 실험연구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방법별 빈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9>과 같다.

<표 9> 국외 학술지의 연구 방법별 빈도

구분	사례연구		실험연구	
	N	%	N	%
국내	5	38.5	0	0.0
국외	8	61.5	41	100.0
계	13	100	41	100

5. 국내 학술지의 서술적 기술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다섯 편의 국내 문헌의 특성을 서술적으로 기술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국내 분석 대상 학술지의 서술적 기술

저자	년도	대상		중재 프로그램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령	수			
이정숙, 홍정은, 신의진	2002	11~13	남(3)	사회 인지 향상 프로그램	사회 인지, 또래관계,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각	사례연구
이경숙, 홍정은	2002	12	남(1)	사회 인지 향상 프로그램	사회 인지, 또래관계,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지각	사례연구
하영례	2002	4	남(1)	참여관찰법	의사소통, 화용론, 표현 언어	사례연구
우주영	2004	7	남(1)	놀이치료	사회적 행동의 증진, 부적응적인 언어사용의 조절, 주변 대상과의 타협 및 관심 있는 행동표현, 둔한 운동성의 향상	사례연구
김순애, 김나영	2004	9	남(1)	놀이치료	대상아동의 아스퍼거 증후 완화	사례연구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스퍼거 장애를 포함한 자폐 범주성 장애(ASD) 교육 및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외 아스퍼거 장애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10명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연령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과반수 정도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상자수별로는 남자와 여자의 성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남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대상문헌의 수가 여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의 수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시에 10명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존의 자폐성 장애를 대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과 그리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폐성 장애 아동의 경우 이소현(2005)이 “자폐 범주성 장애: 중재와 치료”라는 자신의 역서에서 자폐 범주성 장애의 경우 인관관계 중심의 중재와 치료, 기술-중심의 중재 및 치료, 인지 중재 및 치료, 생리학·생물학적·신경학적 중재 및 치료, 기타 중재로서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을 효과적인 실체로서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한 정서, 언어, 인지·행동, 공능학, 사회성, 기타의 하위 항목과도 상당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중기와 후기 들어 성적, 수면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긴 하였으나 전반적인 연구 동향은 진단준거(DSM-IV-TR 및 ICD-10)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스퍼거 장애의 몇 가지 약점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최근 들어 아스퍼거 장애 아동의 인지결손에 초점을 맞추는 마음이론, 중앙응집, 실행기능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경희, 2001; 하영례, 2002; 우주영, 2004).

넷째, 아스퍼거 장애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는 데 반해 국외의 연구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 위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아스퍼거 장애 관련 문헌을 살펴보아 연구 동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의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국내 문헌들조차도 실험연구가 아닌 소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에 그쳐 국내·외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따른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문헌이 많지 않은 이유와 관련

하여 아스퍼거 장애의 경우 임상적 관찰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관련 문헌을 찾기가 여의치 않았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결과 및 논의의 연구 대상 부분에 간단하게 언급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아스퍼거 장애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를 추가하여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김소희, 정혜승 (2007). 국내 학습장애아 교육 관련 연구동향의 분석: 1996-2006년 학술지 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9(2), 223-256.
- 김순애, 김나영 (2004). 아스퍼거 증후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놀이치료연구**, 8(2), 33-47.
- 김은경, 김은경 (2006). 국내 자폐 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1996-2005년 특수교육학술지 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1(1), 79-109.
- 남기성 (2006). **SPSS를 이용한 통계분석은 어떻게**. 경기도 파주: 자유아카데미.
- 서경희 (2001). 아스퍼거 증후군: 인지적 결함을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8(20), 83-103.
- 성태제, 시가자 (2006). **연구 방법론**. 서울: 학지사.
- 우주영 (2004). 아스퍼거 장애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0(4), 231-263.
- 이경숙, 홍정은 (2002). 아스퍼거 장애 중학생의 사회인지 향상 프로그램 적용 사례. **놀이치료 연구**, 6(2), 75-91.
- 이소현 (2005). **자폐 범주성 장애: 증재와 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정숙, 홍정은, 신의진 (2002). 아스퍼거 장애아동의 사회 인지 향상 프로그램 적용사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3), 71-91.
- 전병운, 고진복 (2007). 우리나라 장애아동 음운중심 읽기지도 연구 방법 및 결과 분석. **특수 아동교육연구**, 9(2), 115-143.
- 최성욱, 김민정 (2007). 국내 인지-행동 중재전략의 연구 동향 분석: 1996 ~ 2006년 발달 장애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4), 365 ~ 387.
- 최현철 (2003). **미디어 연구 방법: 응용과 실습**. 서울: 한나래.
- 하영례 (2002). 아스퍼거 장애유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표현문제를 중심으로. **정서·학습 장애연구**, 18(3), 281-30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ision). Washington, DC: Author.
- Attwood, T. (1998). *Asperger's syndrome: A guide for parents and professionals*. London, UK: Jessica Kingsley Publisher.
- Carter, C., Meckes, L., Prichard, L., Swensen, S., Wittman, P. P., & Vel-de, B. (2004). The friendship club: An after-school program for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Family and Community Health*, 27(2), 143-150.
- Ehlers, S., & Gillberg, C. (1993). The epidemiology of asperger syndrome: A total population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8), 1327-1350.
- Ehlers, S., Nyden, A., Gillberg, C., Sandberg, A., Dahlgren, S., Hjelmquist, E., & Odom, A. (1997). Asperger syndrome, autism, and attention deficit disorders:

-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gnitive profile of 120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 Allied Disciplines*, 38(2), 207-217.
- Firth, U. (2004). Emanuel miller lecture: Confusions and controversies about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4), 672-686.
- Gillberg, C., & Billstedt, E. (2000). Autism and asperger syndrome: Coexistence with other clinical disorder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2(5), 321-330.
- Gillberg, I. C., & Gillberg, C. (1989). Asperger syndrome some epidemiological considerations: a research note. *Journal of Child Psychol. Psychiatry*, 30(4), 631-638.
- Green, D., Baird, G., Barnett, A. L., Henderson, L., Huber, J., & Henderson, S. E. (2002). The severity and nature of motor impairment in asperger syndrome: A comparison with specific developmental disorder of motor func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5), 655-668.
- Gresham, F. M., Sugai, G., & Horner, R. H. (2001). Interpreting out-comes of social skills training for students with high-incidence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67(3), 331-344.
- Hayden, T. (1998). Asperger syndrome: Autism's shadow. *Newsweek*, 53.
- McConachie, H., Couteur, A., & Honey, E. (2005). Can diagnosis of asperger syndrome be made in very young children with suspected autism spectrum disorder?.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5(2), 167-176.
- Myles, B. S., & Adreon, D. (2001). *Asperger syndrome and adolescence: Practical solutions for school success*. Shawnee Mission, KS: AAPC.
- Myles, B. S., & Simpson, R. L. (2001). Effective practices for students with asperger syndrome.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34(3), 1-14.
- O'Neil, J. (1999). A syndrome with a mix of skills. *New York Times*, 1.
- Rhinehart, N. J. (2002). A clinical and neurobehavioural review of high-functioning autism and asperger's disorder.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6(6), 762-770.
- Reitzel, J., & Szatmari, P. (2003). Learning difficulties in asperger syndrome. In M. Prior (Ed.), *Asperger syndrome, behavioural and educational aspects*(pp.35 ~ 54).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Stephen, P. S. (2001). Asperger syndrome: The emerging challenge to special education.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67(2), 151-160.
- Stewart, K. (2002). *Helping a child with nonverbal learning disorder or asperger's syndrome: A parent's guide*. Oakla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 Wing, L. (1981). Asperger's syndrome: A clinical account. *Psychological Medicine*, 11, 115-129.
- www.springer.com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on the Asperger Disorder in Korea and in Abroad:
A Review of Research from 1997 to 2007

Yoon, Chi-yeon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Choi, Seong-ook

Busan Borim Elementary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ynthesize research trends of the Asperger disorder. For this, 101 studies that were published with important journal articles or studies in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areas from 1997 to 2007 in Korea and in Abroad were reviewed. A total of 101 articles or studies were analyzed in term of research subjects, intervention program, topics and method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subjects and participants most referred infants and preschoolers were less included than adults. Second, the most used intervention program was theory of mind and interviews. Third, the research topic areas most referred were Belief term development, Visual illusions and Social attribution task. Fourth, the research methods most referred case studies were less included than experimental studies. In one of the few studies of Asperger disorder. Future study trends would be discussed about that based on the result, descriptive research analysis about the intervention program in education for Asperger disorder.

Key Words

: Asperger disorder, Autism spectrum disorders

논문 접수: 2009. 1. 27 심사 시작: 2009. 2. 11 게재 확정: 2009. 6. 16